현대차·기아, 세계 3위 자동차 시장 인도서 '쾌속 질주'

1분기 현대차 15만3550대·기아 7만5576대 판매…역대 최다 기록
SUV 판매량 18만1758대 전체 80% 차지…크레타 현지화 모델 인기

현대차·기아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올해 1분기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14일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월간 판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도에서 현대차 15만3550대, 기아 7만5576대를 팔아 총 22만9126대의 판매량을 돌파했다.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1분기(22만5686대, 현대차 16만317대·기아 6만5369대)보다 1.5% 증가했다.

특히 기아는 2019년 8월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현지 점유율은 현대차 13%, 기아 6.4%로 합산 19.4%를 기록했고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현대차가 마루티에 이어 2위, 기아가 6위에 올랐다.

현대차·기아의 판매 증가는 현지형 모델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현대차·기아의 SUV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80%인 18만1758대를 기록했고 이중 크레타·베뉴·쏘넷·셀토스는 총 12만1582대 판매돼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차종별로 현대차의 크레타가 4만8449대 판매돼 현대차·기아의 베스트셀링 모델이 됐다. 크레타는 2015년 7월 출시된 첫 현지 SUV 모델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베뉴(3만1195대), 엑스터(1만7330대)가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기아도 쏘넷 2만2497대, 셀토스 1만9441대, 카렌스 1만6352대 등 견조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월 인도에서 판매를 개시한 콤팩트 SUV 시로스가 1만5986대 팔리며 '현대차·기아 붐'을 이끌었다.

현대차·기아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매년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008년 i10을 시작으로 2014년 그랜드 i10, 2015년 엘리트 i20, 2016년 크레타, 2018년 베르나, 2020년 베뉴, 2021년 i20, 2023년 카렌스, 2024년 엑스터 등이 '인도 올해의 차'로 선정될 만큼 인도에서 두 브랜드의 인기는 이미 입증된 상태다.

현대차·기아는 판매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인도에 특화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현대차는 2023년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푸네공장을 인수했고, 연산 20만대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가동을 준비 중이다. 또 현대차 인도법인(HMIL)이 지난해 10월 현대차 해외 자회사로는 처음으로 인도 증권시장에 상장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12월 인도 공과대학교와 '현대 혁신센터' 공동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인도에 특화된 마이크로 모빌리티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인도 현지에 맞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그룹, 협력사 판로 개척 돕는다…북미 기술전시회 공동 참가

전시·바이어 상담 지원…수출 상담 실적 9400만 달러 달성

현대자동차그룹이 중소 협력사들과 북미 최대 모빌리티 기술 전시회에 참가해 주목받고 있다.

수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신규 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24개 중소 부품협력사와 함께 지난 8~10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헌팅턴 플레이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모빌리티 기술 전시회 'WCX(World Congress Experience) 2025'에 공동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WCX에 '현대차그룹 협력사관(HYUNDAI MOTOR GROUP PARTNERS)'과 협력사별 개별 전시 부스를 마련해 협력사들이 신기술·제품 전시, 전 세계 바이어들과의 원활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대차그룹 협력사관에는 동일기계공업(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세인아이앤디(와셔, 버스바), 성원피에프(선루프 브라켓), 광성강관공업(인발파이프), 성림첨단산업(영구자석) 등 24개 사가 참여했다. 전시회 동안 수출 상담 실적은 미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 84개 기업, 94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부 협력사는 견적 요청을 접수하고 향후 구체적인 계약 일정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미국 WCX에 이어 인도와 일본, 독일에서 열리는 글로벌 부품 전시회에도 중소 부품협력사들과 함께 공동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수출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 전시에 참여한 배효근 성림첨단산업 차장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회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며 "특히 최근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 마케팅 지원은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소 부품 협력사들은 우수한 기술과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와 네트워크로 해외 판로 개척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앞으로도 협력사들이 현대차그룹 협력 기업이라는 신뢰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해외 마케팅 행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중소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 열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7년간 전시회 참가를 통해 달성한 수출 계약 실적은 900억원에 이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금호타이어, 협력사와 상생의 길 모색…간담회 개최

협력사 100개사 초청…고충 청취·공급망 ESG 관리 방안 등 공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설비 구매 협력사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본관에서 ESG 경영과 상생 협력을 주제로 '2025년 설비 구매 협력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설비 구매 주요 협력사 100개사 대표와 임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자사의 공개 입찰 프로세스(K-POS 시스템)와 주요 구매 정책 추진사항을 소개하고 ESG 경영·글로벌 규제 동향, 공급망 ESG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금호타이어는 간담회에서 나온 협력사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구매 업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통해 금호타이어의 ESG 경영 정책 방향을 잡고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은태 금호타이어 구매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협력사와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협력사 평가와 검증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구매 부문 우수 협력사와 ESG 우수 협력사 총 4개사를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GLE 350 4MATIC. 〈벤츠코리아 제공〉

벤츠 럭셔리 준대형 'GLE 350 4MATIC' 출시

온오프로드 안정적 주행 장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GLE 350 4 MATIC'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GLE 350 4MATIC은 벤츠 럭셔리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LE의 신규 트림으로 직렬 4기통 엔진에 9단 변속기를 결합해 258마력의 최고 출력과 40.8kgf·m의 최대 토크를 선보인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로 높은 추가 출력도 지원한다.

차량에는 온오프로드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됐다. 주행 환경에 맞춰 차량 높낮이를 조절하는 '에어매틱 패키지'와 험로에서 차량 아랫부분의 가상 시야를 제공하는 '투명 보닛' 기능 등이다.

실내에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적용된 부메스트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앰비언트 라이트, 다기능 열선 스티어링휠 등 다양한 편의장치는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트림 출시에 따라 GLE 라인업을 GLE 350 4MATIC, GLE 450 4MATIC, GLE 300d 4MATIC, 메르세데스-AMG GLE 53 4MATIC+ 등 4개로 늘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새로 공개한 현대 신형 모델 차들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56만명 찾은 '서울모빌리티쇼' 성료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11일간 '방문객 56만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막을 내렸다.

14일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총 56만명이 방문했다. 2023년 행사(51만명)보다 1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서울모빌리티쇼는 12개국, 451개 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현대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BMW 등 국내외 12개 완성차 브랜드는 21종의 신차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HD현대, BYD, 롯데가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하고 인공지능·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전시되는 등 모빌리티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